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5월 3~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하가 금리인하 사이클 시작 아님을 강조(5.9)

-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 아담 글라핀스키(Adam Glapiński)는 최근 단행된 기준금리 0.5%p 인하는 일회성 조정이며, 본격적인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고 언급함
- 이번 금리 인하는 임금 상승 압력 완화와 경기 둔화 조짐에 따른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자나 부동산 시장 지원이 아닌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앙은행의 주된 목적임을 강조함
-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로비와 미출시된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 압력을 가했다고 설명함
- 중앙은행은 향후에도 물가 전망과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금리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2.5% 목표치로 낮추는 것이 여전히 목표라고 밝힘

○ 2025년 1분기 폴란드 임금, 전년 대비 10% 상승(GUS, 5.9)

- 폴란드 통계청(GUS)은 2025년 1분기 평균 월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해 8,962.28즈워티(약 2,113유로, 2,378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함
- 이는 2024년 4분기 대비로는 5.7% 증가한 수치이며, 기업 부문에서는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2%로 잠정 집계됨
- 202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기존 4,300즈워티에서 4,666즈워티(약 1,100유로, 1,240달러)로 인상됨

- 바르샤바 쇼팽공항 대규모 확장 계획 확정...신공항 개항 전까지 수요 대응(5.9)
 - 폴란드 정부는 중앙공항(CPK) 신설 전까지 바르샤바 쇼팽공항의 수용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터미널과 비생겐 지역 게이트, 생겐 구역 확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인프라부 차관 라섹(Maciej Lasek)은 확장이 저비용 방식으로 추진되며, 설계 및 시공 입찰이 준비 중이며 공사는 2026년 시작, 2029년 완료 예정이라고 언급함
 - 확장 후 쇼팽공항의 연간 수용 인원은 3천만 명으로 증가하며, 보잉737·에어버스A320용 스탠드는 62개→83개, 드림라이너용 스탠드는 15개→24개로 늘어남
 - 해당 사업 예산은 약 16억 즈워티(약 370백만 유로)로, 40%의 예비비 포함. 현재 CPK가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으며, 연내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 가속화 기대됨
 - 쇼팽공항은 2024년에 2,13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며 중·동유럽 주요 공항 중 하나로 성장했고, LOT 항공,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 항공 등 다양한 항공사가 이용 중임

2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EBRD, 우크라이나 중소기업 대상 6천만 유로 규모 녹색전환 금융 지원 개시 (5.16)
 - EBRD는 ProCredit Bank와의 리스크 분담 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중소기업 및 가계에 최대 6천만 유로 규모의 에너지 생산·저장·효율 향상 목적 대출 시행 예정임
 - 전체 자금 중 약 70%는 녹색경제 전환 관련 프로젝트에, 20%는 EU 기준 기술 및 장비 업그레이드 목적의 중소기업 장기 투자에 투입될 계획임
 - 약 8%는 주택(가구·공동주택) 부문에 할당되며,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는 EBRD 특별기금(ESSF)을 통해 투자비의 10~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함

- 전쟁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가구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예정임

○ EU, 우크라이나 수입품 관세 인상 예정 및 무역협정 개정 전 임시 대책 제안 (5.15)

- 6월 5일부로 현재 무관세 무역협정이 종료되면서 EU는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전 무역 조건으로 복귀 시 연간 약 35억 유로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함
- EU는 무역협정 개정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폴란드의 농민 보호 요청에 따른 조치임. 현재 우크라이나는 연간 무관세 수출 한도가 허용되고 있음
- 과도기적 조치로 연간 할당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수입 쿼터를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옥수수, 설탕, 꿀, 닭고기 등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키이우 고급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후 회복 조짐 (5.15)

- 2022년 이후 전쟁 초기 심각한 침체를 겪던 우크라이나 고급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부터 키이우와 리비우 중심으로 수요 회복 조짐을 보임. DIM 그룹이 키이우 프리미엄 신규 프로젝트 ‘The One’을 선보이며 전쟁 이후 처음으로 신축 사업을 개시함.
- 신축 프로젝트 아파트의 약 30%가 몇 달 만에 판매되어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함을 나타냄
- 그러나 전쟁 이전과 비교해 키이우 시장 총 수요는 86-88% 감소했고, 3년 이상 전쟁으로 프리미엄 주택 중고시장 가격은 30% 하락함
- 반면 신축 시장 가격은 전쟁 전 평방미터당 \$3,000~\$6,000에서 현재는 \$2,500~\$4,000 수준으로 회복 중이며, 올해 7~12% 가격 상승이 예상됨

○ 우크라이나 쇼핑몰 건설비, 전쟁 기간 20% 상승 (5.15)

- 2022년 이후 약 56개 쇼핑몰이 개장 또는 복구되어 약 100만㎡의 소매 공간이 마련됨. 2025년에는 약 25만㎡, 2026년에는 2829만㎡ 신규 쇼핑몰 건설이 계획됨
- 서부 및 중부 우크라이나에서 건설 활동이 가장 활발함
- 전쟁 기간 동안 피난소 설치 등 안전 관련 법규 강화로 인해 쇼핑몰 건설비가 20% 상승함. 일반 건축 공사 비용은 외화 기준 약 1015% 상승, 설비 및 전문 장비 비용은 30~35% 증가함
- 특히 3,000㎡ 규모의 피난소 건설에 최소 300만 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에너지 자립과 효율성 문제로 대부분 신축 프로젝트에 발전기가 설계 단계부터 포함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4월 소비자물가, 2년 만에 15% 초과 상승(5.12)

- 2025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15.1%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3월: 14.6%)
-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 가격이 1.8% 상승했으며, 특히 돼지고기(7.9%)와 과일이 큰 폭으로 상승함
- 계란(-2.5%), 쌀(-1.3%), 버터(-0.2%) 등 일부 품목은 가격 하락함
- 알코올 및 담배 제품은 1.3% 상승, 특히 담배는 2.2% 상승함
- 교통 부문에서는 연료 및 운할유 가격이 2.2%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0.3% 하락했으나, 육상 및 철도 여객 운임은 각각 0.9%, 0.8% 상승함
- OECD는 2025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 13.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6년에는 7.1%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함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폴란드, 우크라이나 파병설 강력 부인(5.14)

- 폴란드 국방장관은 미국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 키스 켈로그가 주장한 '폴란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일축함
-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주장을 조작이라고 비판함
-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모두 같은 입장을 반복해 밝히며 파병가능성을 전면 부인함

○ 폴란드, 방화 사건 관련 러시아 외교관 소환 및 크라쿠프 총영사관 폐쇄 조치(5.12)

- 폴란드 외교부는 바르샤바 대형 쇼핑센터 방화 사건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정황에 따라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소환함
- 폴란드는 크라쿠프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운영 승인을 철회할 예정이며, 공식 외교 서한을 이날 중 전달할 계획임
-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행위를 알고 있으며, 용납하지 않으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 폴란드 대선 판세 : 트샤스코프스키 1위 유지하나 지지율 하락세(5.11)

- 5월 18일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Opinia24/Newsweek)에 따르면, 친EU 성향의 시민연합(KO) 소속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Warsaw 시장)가 30%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함. 이는 “이번 캠페인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 중 하나”로 평가됨
- 2위는 보수 성향 야당 PiS(법과정의당) 및 두다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카를 나브로츠키(42세)로 25% 지지. 그러나 PiS 정당 지지율(30%) 대비 낮은 수치로, PiS 지지층의 결집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있음. 나브로츠키는 최근 '주택 스캔들'에 연루돼 향후 지지율 변동 가능성 있음

- 3위는 극우 성향 자유·독립연합(Confederation) 소속 스와보미르 멘첸으로 13% 지지 획득.
-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쳐 사실상 상위 3인 간 경쟁 구도. 하위권에는 중도 성향 제3의 길 소속 호워브냐 하원의장, 좌파 후보 마그달레나 비야트 및 아드리안 잔드베르크 포함

○ 폴란드 정부, CPK 신공항 운영사로 PPL 지정 발표(5.16)

- 다리우시 클림차크 인프라부 장관은 TVP 방송 인터뷰에서 중앙 공항(CPK)의 운영을 폴란드국영공항공사(PPL)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전 정부가 외국 컨소시엄에 50%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공항 운영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자국 기업 중심의 ‘재폴란드화’를 추진 중임
- CPK 건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부처 간 협의 중이며, 보상금 지급 가속화 등 주민 친화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이미 공항 부지의 절반 이상이 매입 완료되었고, 철도 노선용 토지 확보도 활발히 진행 중임
- PPL은 CPK 추진 외에도 쇼팽 공항 현대화, 라돔 공항 활성화, CPK 재원 조달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 CPK, 우치 고속철 터널 설계 입찰 공고 및 첫 인프라 건설 허가 확보(5.16)

- CPK는 우치 레트키니아(Retkinia) 분기점 루블리넥(Lublinek) 구간 고속철도(3km) 건설 관련 설계 및 기술 지원 입찰을 6월 9일까지 접수함
- PKP PLK(폴란드 철도 인프라 운영사)와 협력해 기존 노선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및 주민 요구 반영을 위한 최적화된 선로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됨
- 이번 입찰 구간은 우치-브로츠와프 및 시에라츠-포즈난 구간 등 향후 KDP(고속철도) 노선 전체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편, CPK는 110kV 및 220kV 송전선 건설 허가를 획득함. 이는 공항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의 첫 단계로, 기존 노선을 대체할 신규 송전선 건설은 2026년 23분기 시작 예정임

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젤렌스키, 튀르키예 회담서 푸틴 불참 및 러시아 대표단 격 낮음에 실망 표명(5.16)

- 젤렌스키 대통령은 5.15 앙카라 도착 직후 “러시아 대표단은 가짜(fake)”라고 언급하며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비교함. 러시아 대표단은 푸틴 보좌관 메딘스키(Vladimir Medinsky), 외무차관 갈루진, 군총참모국장 코스튜코프, 국방차관 포민 등으로 구성됨. 메딘스키와 포민은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항복 협상단 일원임
- 서방 외교관들은 푸틴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격 낮은 인사들만 보낸 것은 타협 의지 부족 및 여전히 2022년과 같은 목표(우크라이나 해체)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함
- 젤렌스키는 푸틴 불참 시 회담 철수를 고려했으나, 미·EU 등 서방 동맹국의 설득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서방 측은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이스탄불 회담이 돌파구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함

○ 2024년 폴란드의 對우크라이나 투자 10% 감소 (5.16)

- Gremi Personal에 따르면, 2024년 폴란드의 對우크라이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72.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함
- Concorde Capital은 주요 원인으로 “재투자이익 감소”를 지목했으며, 이는 전체 FD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투자 감소의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외환 규제 완화로 인한 자금 운용 경로의 다변화 가능성이 있음
- 2022~2024년간 폴란드의 누적 투자액은 약 4억6,000만 달러이며, 향후 몇 년간 투자 규모는 연 12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NBU(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외환 통제, 국제 M&A 거래 및 시장 활성화 저해 (5.16)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외환 통제로 인해 국제 인수합병(M&A) 거래 체결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내 M&A 시장은 활발하나 흐리브냐(UAH)로 거래 종결이 쉽지 않아 거래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남
 - umgi 투자회사 나디야 카즈나체예바 최고경영자는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지리적 확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과 거래 보장이 어렵고 전략적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언급함. 예측 가능성이 회복되어야 관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분석함
 - 2025년 전망으로 농업, IT, 에너지, 물류, 인프라, 국방기술(miltech) 분야에서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산업 광물은 국가 복구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됨. 시장은 어려움에도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산업용 전기 요금 상승, 일부 기업 경쟁력 상실로 가동 중단 (5.16)
 - 5월 상순(110일) 우크라이나 산업용 전기 소매 가격이 4월 평균 대비 약 20% 상승했으며, 5월 113일 전일시장 전기 평균 가격은 MWh당 €112로 유럽 내 최고 수준임
 - 전 에너지장관 올가 부슬라베츠는 가격 상승 원인으로 추운 날씨, 흐린 날씨로 인한 소비 증가, 낮은 태양광 발전량, 9개 원전 중 4기 정비 중, 수력발전용 물 부족, 일부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꼽음
 - 5월 12일 원전 가동 재개 이후 전기 시장 가격이 즉시 하락하는 효과도 있었음
 - 하지만 메트인베스트 그룹 산하 잉굴레츠 광산 가공 공장은 전기 및 물류비 증가로 2024년 여름부터 가동 중단 상태임. 경쟁력 있는 생산비 확보가 어려워 수출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음

○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펀드 설립 절차 완료(5.15)

- 우크라이나 PPP청과 미국 DFC는 투자펀드 출범을 위한 유한책임 회사(LLC) 및 합자회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펀드는 5월 23일 공식 설립 예정임
- 운용은 설립 후 약 2개월 뒤 개시되며, 양국 정부는 펀드의 공동 운영 구조에 합의함
- 운용진은 미국·우크라이나 각 3인으로 구성되며,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가 미국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여함
- 4개 위원회(운영·감사·프로젝트 발굴·투자 결정)가 구성되며, 핵심 결정은 이사회 만장일치로 의결함

○ IFC, 향후 18개월간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투자 계획(5.15)

- 세계은행 그룹 산하 IFC는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투자 규모를 약 300%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2억 달러(은행 12억불, 농업 5억불, 인프라 3억불 등)를 투자함. 최근에는 Galnaftogaz사에 5,387만 달러 융자하여 147MW 규모 풍력발전소(Volyn) 개발 지원
- 향후 18개월간 3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이며, 민간 역할 확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PPP 활성화 등 경제부와 협력 추진 중임
-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 수립 작업도 병행 중임

○ 美 엘리엇社, 러시아 가스 EU 수출 파이프라인 지분 인수 협상 중(5.12)

- 미국의 엘리엇 투자운용사(Elliott Investment Management)가 터키 스트림(TurkStream) 가스관의 불가리아 구간 등 인프라 자산 지분 인수를 협상 중임
- 해당 거래는 데이터센터, 케이블망 등 기타 인프라 자산도 포함되며, 현재 초기 협상 단계에 있음
- 전문가들은 이 거래가 우크라이나, 독일 내 유사한 거래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함

-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미-러 간 가스 공급 문제도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함
- 슬로바키아 총리 피코(Robert Fico)는 푸틴과의 회담에서 EU의 러시아 에너지 탈피 정책인 'REPowerEU'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할 경우 거부권 행사 의사를 표명함

○ 젤렌스키, 푸틴과 5월 15일 터키 회담 제안…즉각적 조건 없는 휴전 촉구(5.11)

-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5월 15일 터키에서 열자고 공식 제안함
- 젤렌스키는 “살상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며 5월 12일부터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장기 휴전을 제안함
- 미국 및 EU 동맹국들도 직접 협상을 지지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함
-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5월 15일부터 이스탄불에서 조건부 평화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함
- 젤렌스키는 “푸틴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5월 15일 터키에 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어떤 형식의 협상에도 열려 있다고 강조함
-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는 30일간의 휴전안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치” 라며 거부함
- 우크라이나는 이미 3월 11일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에 동의했으며, 5월 10일에는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5월 12일부터 조건 없는 30일간 휴전을 제안한 바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각 평화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는 터키에서의 회담 제안에 즉시 동의해야 한다” 고 발언함

○ **우크라이나, 美와 광물 협정 비준(5.9)**

- 우크라이나 정부는 美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체결한 광물 협정을 비준했으며, DFC가 최초 자금 기여자로 참여함
- 협정은 미측이 “휴면 채굴 허가권(dormant licenses)”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익 분배는 협정 발효 후 최소 10년 이후부터 시작되며, 미국은 투자 원금 상당액을 우선 회수하고, 잔여 수익은 양국이 동등하게 분배함
-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법적·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보증(guarantee)을 제공함
-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령한 채굴 라이선스 및 임대료 수입은 PPP 계약에 예치되며, 이후 양국 간 정부기금(intergovernmental fund)으로 이전됨
- 해당 기금은 신규 개발 정보에 대한 우선 접근권과 향후 생산물 판매에 대한 우선권을 보유함
- 미 기업들이 광물 채굴권 접근에 있어 특혜를 받지 않으며, 이미 광물 탐사권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투자 권한에 중점을 둔 구조임.

○ **EU, 러시아 제17차 제재안 준비 및 우크라이나 방산에 10억 유로 지원 확정(5.9)**

-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제17차 제재안을 5월 20일 채택할 예정이며,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평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제재 강화를 강조함
- 폴란드 외교장관 시코르스키는 러시아가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기에 제재는 더욱 강력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번 회의에서 EU는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10억 유로를 배정하고, 국제 전범재판소 설립 지원 의지를 밝힘
- 우크라이나 독립, 영토 보전, 러시아 점령 불인정, 우크라이나 없

는 평화협상 금지 등이 평화 조건으로 제시됨

- 이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러시아의 왜곡 서사 반박, EU 이주 정책 협상, 독일·영국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됨

○ EU, 러시아 제17차 제재안 마련... 석유 '그림자 선단'·첨단기술 수출 겨냥(5.6)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월 6일 오후 EU 회원국에 러시아 제재 관련 제17차 제재안 초안을 회람할 예정임
-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기존보다 다소 소극적일 수 있으나 제재 대상을 확대할 방침임
-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에 러시아 개인, 기업, 기관 등이 추가되며, 가격상한제를 위반하고 석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범위도 확대될 예정임
- 제재안 초안이 회람되면 폴란드가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 최종안 채택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앞선 2월 제재안에서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 화학제품 수출 제한, 일부 러시아 은행 SWIFT 차단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음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종합계획수립(마스터플랜,MP) 사업

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 사업 개요 >

- (발주처) 해외건설협회, KIND, 태웅로직스
- (용역사)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지평
- (용역비) 730백만원
- (용역기간) 2025.2.~2025.7(150일)
- (주요내용) M10 산단 사업 투자를 위한 재무 및 법률 등 타당성 분석
- (추진현황) '25.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
'25. 3월 현지 착수보고
'25. 5월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5. 7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및 착수 완료('25.2), 현지 착수보고 및 현지조사 완료('25.3), 타당성조사 수행중

② 6대 선도 프로젝트(참고)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11월 최종 PAC(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발급

- (주요동향)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 Conditional PAC 발급 협의 중

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베올리아, KIND, 남부발전
- (사 업 비) USD 480백만
- (사업내용) 폐기물 연20만톤 처리, 전기 18.6MWe 및 열 57 MWt생산
- (추진현황) '25.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
'25.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
'25. 5월 Non-binding Offer 제출 및 협상 예정
'25. 3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

- (주요동향)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 현지 착수보고('24.2월) • 1단계 중간보고('24.9월) • 2단계 중간보고('24.10월) • 초청연수 실시('24.10월) • 현지 최종보고('25.4월) • 국내 최종보고('25.5월)
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4월4주) •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
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 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24.12월)
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25년 上) * 환경부 F/S 지원사업
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 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5.10월)
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	• 우 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919km) 중 우크라 구간(580km)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 '24년 외교부 ODA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25년)